

기고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현장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아시나요?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생사의 갈림길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골든타임(Golden Time)'입니다.

골든타임은 환자가 생명을 유지하거나 장애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현장응급처치입니다.

현장응급처치는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뜻합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CPR),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출혈 환자의 지혈 처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는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며, 후유증 또한 줄어듭니다.

특히 심정지의 경우, 4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평균 710분. 결국 가장 먼저 현장에 있는 시민의 행동이 환자의 생명을 결정짓는 셈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공동으로 '생명을 잇는 첫 손길'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생부터 직장인,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손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누군가 하겠지'라는 수동적인 태도로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현장응급처치는 의사가 아닌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입니다.

학교, 직장, 가정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평소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나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띄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응급처치, 우리가 함께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강진소방서 성전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임찬호

현대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한다. 특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각종 사회 현상들이 급변해 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표출되어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족 집단의 기능이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사회의 가족기능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핵가족의 시대를 넘어서 일 세대 내지는 단독세대 가족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무너져가는 가족기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설령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삶을 함께 영위한다더라도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은 매우 희박해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미 예견되었던 바다. 그래서 과거 개발독재 정권 시절에도 뜻있는 사람들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균형 발전을 주창했었다. 안정이 도외시된 체 성장 위주로만 독주하게 되면 이들이 균형을 잃고서 정신적 아노미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당시 리더지들은 이를 도외시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사회는 수많은 병리 현상들을 유발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는 곧 사회문제화되어 우리들의 체제를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다.

가장 기초단위인 가족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를 구성해주는 최초의 결합체인 부부사이의 연성화는 가족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이 한 지붕 밑 이혼 부부 내지는 이혼으로 치달을 때, 수많은 문제를 양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 양육 및 노인부양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곧 청소년문제, 한부모 가족 문제, 빈곤 문제 등 여타의 문제들로 연쇄적 파생을 거듭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 필요성이 필수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부이혼 시, 자녀의 양육만은 이혼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맡으려는 경향이어나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지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흐르는 부성불확실성의 원리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성이 자녀의 양육을 떠맡게 될 때, 남편으로부터의 적절한 양육비 수급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된다. 만약 그것을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면 자녀 양육에 질은 먹구름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여타의 교육 또한 한쪽의 성만으로는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녀의 모방모델 한쪽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부모에 의한 자녀 양육은 많은 문

제를 수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급부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가족기능의 약화에 의한 노인 문제다. 노인들은 젊어서부터 자녀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정성을 다해왔다. 자녀를 하나의 애정의 상징이자 재산의 개념으로 양육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 자녀들은 그러한 노부모를 백안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반증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자살률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증가일로 중이다. OECD국가 중에서도 1위다. 그 주요 원인은 폭력과 방치 그리고 가난과 질병, 외로움 등이다. 이에 대한 국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처럼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가족기능이 급속히 약화되어가는 현실 앞에서는 더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은 가족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국가 및 지역사회를 비롯한 우리모두는 무너져가는 가족기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하자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26분쯤 여주시 만흥동의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직원과 이를 구조하려던 업체 대표가 잇따라 쓰러져 2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과거에도 2020년 부산에서 맨홀 내부에서 작업 중 3명이 숨졌고,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에서는 채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발화·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4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으로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 또 유해가스 등이 폭발범위 내에 존재해 성냥이나 화기 등 점화원과 접촉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에 작업 전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산소 결핍·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안전수칙과 사용해야 할 보호구·장비, 사고 시 구조 방법·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의 맨홀, 정화조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화재·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주요 안전수칙에는 ▲작업 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중 환기 ▲보호구 착용 ▲작업 중 정지정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밀폐 공간에서 구조 작업을 할 땐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구조에 나서야 한다. 보호 장비가 없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해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모든 사고가 마참가지지만 안전수칙을 지킬 때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음력 6월 10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Each sign includes a small icon and a brief text description of their fortune for the day.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147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